

農村의 家族移住에 관한 研究

慶南 咸安, 晉陽, 固城郡의 家族移住를 중심으로

李 焰 惠

責任研究員, 農村社會研究室

金 鍾 德

研究員, 農村社會研究室

- I. 序論
- II. 用語의 定義와 研究方法
- III. 部分家族移住의 實態와 特徵
- IV. 移住要因
- V. 移住와 農村 勞動力
- VI. 移住에 대한 評價
- VII. 要約 및 討議

I. 序論

우리 나라의 都農別 人口數를 보면 都市地域의 급격한 人口成長과 農村地域 人口의 점차적 감소라는 경향이 뚜렷하다. 1966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1980년 현재 都市地域 人口數는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農村地域 人口數는 절대인구에 있어 17.4%가 줄어들었다(경제기획원 1981). 이처럼 都市地域 人口數의 급격한 증가와 農村의 절대인구수의 감소는 都市地域 人口의 자연증가(出產力 - 死亡力), 農村으로부터 都市地域으로의 純移入 인구의增加, 都市의 地域擴張 또는 都市昇格에 의한 人口增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農村地域으로부터 도시지역으

로의 純移入人口의 증가가 都市成長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유의영 1973, 23-24).

都市人口의 급격한 증가와 農村人口의 감소는 우리 사회가 겪는 社會變動, 특히 經濟成長에 따른 취업구조의 개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都市와 農村地域 모두에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本研究의 범위상 都市地域에 제기하는 문제는 논의로 하고 農村地域에 제기하는 문제점을 간략히 소개하면, 農村 勞動力의 부족, 영농 후계자 양성 문제, 농촌노임의 상승, 농촌 중견 자도층의 상실 및 부녀 노동의 강화, 새로운 형태의 소작농의增加 등이 지적되고 있다(崔敏浩, 李洛薰 1980, 15-16; 人口問題研究所, 1971. 61-68).

離農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離農現象에 대한 綜合的 研究가 요청되지만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農村地域의 部分家族移住를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本家를 통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調査地域으로는 慶南 咸安, 晉陽, 固城 3개 郡으로 하였다.¹

本研究에서는 이들 3개 郡에 나타난 部分家族 移住의 실태와 특징에 중점을 두어 다루되, 부분적으로는 移住要因, 移住評價에 관계되는 요인, 그리고 部分家族移住가 農村社會에 미친 社會的 결과도 着하고자 한다.

II. 用語의 定義와 研究方法

1. 部分家族移住의 定義

본연구에서 研究 對象으로 삼은 部分家族移住에 대해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작적으로 定義해 사용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移住는 人口의 地域的 移動으로 한정하고 근거지(place of origin)에서 행선지(place of destination)로의 住居 이전을 뜻하는 데² 本研究에서는 이 定義에 다 移住 단위가 全家口가 아닌 경우를 部分家族移住로 정하였다. 따라서 일시적 방문과 또 일시적인 人口移動의 대표적인 예로 중요성을 높고 있는 居住地와 職場間의 通勤 및 연중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季節的 人口移動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국외취업 이동과 군복무,³ 학생 遊學 등은 部分家族移住範疇에 포함되었다.

2. 研究地域의 特徵과 標本選定

우리가 研究地域으로 정한 咸安, 晉陽, 固城, 3개 郡은 경상남도 남단에 위치한 중간지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農村地域이다. 이곳에는 1978년부터 南江綜合開發事業이 진행 중에 있고, 인근의 都市로는 晉州, 馬山, (易原,)釜山 등이 있다.

본연구에서는 우선 咸安, 晉陽, 固城 3개 郡의 行政리 總 837개 중 南江流域開發事業 해당 지역인 총 234개 行政리를 母集團으로 하여, 이 중 무작위로 50개 行政里를 1차로 추출하고 각 行政리에서는 系統的 標本抽出 방법으로 비농가를 제외한 16農家를 추출 총 800농가를 표본으로 選定하였다.

3. 資料蒐集과 分析

본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81. 8. 13~9. 21에 걸쳐 실시한 現地調査를 통해 수집되었다. 즉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여 훈련된 調査員이 대리 작성된 調査標를 가지고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 800農家 중 資料의 質이 의문시되는 7개의 標本農家를 分析에서 제외시켰고, 資料處理는 한국 과학기술원의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部分家族移住의 實態와 特徵

1. 部分家族移住의 實態

조사된 793農家 중 1명 이상의 部分家族移住者가 있는 農家는 501農家(調查 農家의 63%), 移住者總數는 953명으로 移住者가 있는 農家當

¹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서는 ADB(아시아 개발은행) 용역사업으로 1981년 8월 이 지역에서 南江農業綜合開發事業에 대한 社會指標調査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部分家族移住문제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² 家族計劃研究院 人口情報管理센타, 「人口學辭典」, p. 81 참조.

³ 군복무의 범주는 非自發的 移住이기 때문에 部分家族 移住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나 農村人口構成의 變化要因의 하나이므로 여기서는 포함시켰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제외시키고 分析하기로 한다.

1. 8명이 移住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군부무로 이주한 59農家(移住者 總數 89명)를 제외하더라도 部分家族移住者가 있는 農家는 442 農家(調査農家の 56%)나 되며, 移住農家當 平均 移住者數는 1.95명이나 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예상외로 많은 農家에서 部分 移住者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앞서 지적한 農村人口의 감소와 都市人口의 增加에 農村의 部分家族移住가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移住時期

農村을 떠난 部分家族移住의 移住時期를 연도별로 보면 아래 〈表 1〉과 같다.

表 1 移住時期

移住年度	部分家族移住者數	比率
1965년 이전	7名	0.7%
1966~1970	32	3.4
1971~1975	111	11.7
1976~1980	595	62.6
1981(조사년도)	205	21.6
계	950	100.0

이 표에 나타난 현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部分家族移住가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3. 部分家族移住者의 性比와 家族地位

部分家族移住者의 性比⁴(sex ratio)는 133.8로 男子가 女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인(男子 86, 女子 3名)을 제외하면 性比가 108.6으로 남자가 많지만 그 차이는 많이 줄어들게 된다. 즉 부문가족 이주자의 男女別 차이는 크지 않다. 부문가족 이주자의 家族地位는 〈表 2〉와 같다.

表 2 部分家族移住者의 家族地位

家族地位	移住者의 數(명)	比率(%)
장 남	198	20.7
2 남	142	14.9
장녀	139	14.6
2녀	117	12.3
남 동생	81	8.5
3 남	71	7.5
3녀	51	5.4
여 동생	38	4.0
4 남	34	4.0
모	23	2.4
4녀	21	2.2
기타	39	4.0
계	954	100.0

〈表 2〉를 통해 가족 지위상 장남, 2남, 장녀, 2녀, 남동생, 3남, 3녀 등의 순으로 移住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남이 2남보다 많고, 장녀가 2녀나 3녀보다 많은 이유는 장남의 교육 수준이 차남에 비해 높고, 家族構成上 장남의 모집단이 차남의 母集團 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移住者의 年齡과 結婚地位

部分家族移住者의 年齡別 分布는 〈表 3〉과 같다.

表 3 部分家族移住者의 年齡別 分布

年齡別	移住者數(명)	比率(%)
9세 이하	9	1.0
10~14세	66	7.0
15~19세	476	50.2
20~24세	322	33.8
25~29세	46	4.8
30세 이상	30	3.2
계	949	100.0

部分家族移住者의 年齡에서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特徵은 15세부터 24세까지의 젊은 층이 전체 移住者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20~24세 사이에서 군입대로 移住하는 수를 제외한

⁴ 性比란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말한다.

다고 하더라도 移住者가 젊은 연령층에 집중적으로 分布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층이 이주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狀況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나이든 사람보다 移住를 포함한 새로운 機會에 대해 쉽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일을 시작하는 初期에 놓여 있고, 住居地의 社會, 經濟的 연대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으로 여겨진다(Lee 1975, 44). 이러한 이유에 덧붙여 農村으로부터 都市의 教育을 목적으로 빠져 나오는 숫자가 전체 部分家族移住者의 33%나 된다는 점(314명이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난 것으로 밝혀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教育을 받기 위해 農村을 빠져 나오는 층의 年齡分布는 대부분 16세~20세(高校 進學 年齡 및 大學進學 年齡) 사이로 쉽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자들의 結婚地位는 調査結果 未婚이 압도적이었다(전체 移住者의 96%). 이것은 앞서 지적한 年齡과 관련시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또 미혼인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쉽게 移住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移住者의 教育水準

部分家族移住者의 教育水準은 아래 〈表 4〉에서처럼 高校入學 이상 수준이 전체 移住者の

6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移住者의 平均教育年數는 10.6年으로 農村 居住者의 平均 教育年數 6.8年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이는 農村에서 높은 教育水準을 가진 인구가 빠져 나감을 말해 주는 것이다.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들이 移住하는 이유는 教育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環境, 특히 근대화 과정의 전초지인 都市環境에 적응하는 能力과 技術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生活向上에 대한 의욕을 높여 주고 다른 地域의 生活, 文物, 機會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의영 1978, 121).

이러한 이유 이외에 본연구의 部分家族移住者의 教育水準이 높은 이유는 農村地域에서 學校進學을 위해 都市로 나온 學生의 教育 수준이 좌우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部分家族移住者 953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14명이 학업 때문에 移住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表 4〉에서 또 알 수 있는 점은 部分移住者 중 女子에 비해 男者の 教育水準이 높으며, 특히 大學 이상의 경우에 성별간에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는 農村에서 學業을 목적으로 나온 移住者 314명의 性比가 191(여자 108명, 남자 206명)에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6. 職業과 職業移動

移住者의 初期職業과 그 이후의 職業 移動은 移住者的 社會移動의 한 尺度라 할 수 있다. 社會移動은 現代產業社會의 성공 또는 만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社會學的 指標이다(Lee and Barringer 1978, 2). 部分移住者的 職業 및 職業移動을 나타낸 것이 〈表 5〉이다.

i) 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學生과 군인을 제

表 4 移住者의 教育水準

教育水準	界		女		計	
	移住者數	比率	移住者數	比率	移住者數	比率
국 졸	46	8.5	75	18.5	121	12.8
중 입학 이상 중 졸	137	25.2	115	28.4	252	26.6
고 입학 이상 고 졸	271	49.8	200	49.5	471	49.7
대 학 재 학 이 상	90	16.5	14	3.4	104	10.9
계	544	100.0	404	100.0	948	100.0

(N=948)

表 5 移住者의 性別 최초직업과 현재직업

단위 : 명 (%)

직업별	최초의 직업			조사 당시(현재)의 직업		
	남	녀	계	남	녀	계
自營業	18(3.4)	3(0.7)	21(2.2)	17 ▲	5 ▲	22 ▲
사무, 관리직	38(7.0)	65(16.2)	103(11.0)	56 ▲	79 ▲	135 ▲
생산, 근로직	141(26.3)	176(43.8)	317(33.8)	148 ▲	163 ▽	311 ▽
학 生	206(38.4)	108(26.9)	314(33.4)	162 ▽	105 ▽	267 ▽
군 인	86(16.0)	3(0.7)	89(9.5)	109 ▲	4 ▲	113 ▲
서 비 스	27(5.0)	10(2.5)	37(3.8)	29 ▲	13 ▲	42 ▲
무 직	21(3.9)	37(9.2)	58(5.4)	12 ▽	32 ▽	44 ▲
계	537(100)	402(100)	939(100)	533	401	934

▲ 상승 : ▽ 하강

의하면 移住者의 初期職業을 生산근로직,⁵ 전문
판리 사무직, 서비스, 자영업⁶의 순서로 나타나
고 있다.

性別로 보면 생산 근로직, 전문판리 사무직의
경우에는 여자의 比率이 높고, 男子의 경우에는
自營業이나 서비스업 직종에서 比率이 높다. 無
職의 경우 女子가 높은데, 여기에는 部分家族이
移住했을 때(학교나 공장 취업)뒷바라지를 위해
떠난 女子들이 이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最初의 職業과 調査 당시의 職業을
비교해 보면 계층 이동이 있었고(▲상승, ▽하강)
그 이동은 상승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 근로직과 무직이 줄어들고 대신 전문판리
사무직, 서비스직이 증가하고 있는 테에서 계층
상승이 엿보인다. <表 4>에서 군인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 農村에서 移住할 때 다른 직종으로
있다가 정집 연령이 되어 군복무를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移住者의 移住地 特징

移住者들의 行선지와 현거주지는 <表 6>과 같

表 6 移住者의 行先地

區 分	최초 행선지		현 거주지	
	이주자수 (명)	비율(%)	이주자수 (명)	비율(%)
서 울	50	5.4	56	6.0 ▲
부산, 마산, 진주	695	74.7	645	69.1 ▽
도 내 타 도 시	45	4.8	58	6.2 ▲
기 타 도 시	38	4.1	55	5.9 ▲
농 촌	74	7.9	84	9.0 ▲
의 국	3	0.3	8	0.9 ▲
모 른 나	23	2.5	22	2.3 ▽
무 용 담	3	0.3	5	0.6 ▲
계	931	100.0	933	100.0

▲ 증가 : ▽ 감소

이 나타나고 있다.

移住者들의 최초의 行선지를 볼 때 移住者들의
대부분이 조사지역(出發地)에서 가까운 釜山,
馬山, 晉州로 이주하고 있고, 移住者의 92%가
都市地域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이 점은 農村의 部分 家族移住가 都市人口
의 급격한 增加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
는 것이다.

現居住地와 최초의 行선지를 비교하면 本家와
인근에 있는 釜山, 馬山, 晉州 등의 거주지는
줄어들고 서울 및 기타 도시 등은 늘어나고 있
다. 이 점은 移住者들이 우선 고향에서 가까운
都市로 이주했다가 일부는 보다 먼 都市로 다시
옮겨 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 준다.

⁵ 生산근로직 범주에는 기능공, 기술공, 단순노동자 등을 포함시켰다.

⁶ 자영업에는 농업, 상업, 공업 등을 포함시켰다.

8. 移住者의 經濟的 水準

移住者들의 經濟的 水準은 移住者들이 지난 1년간 받은 월평균 수입액으로 측정하였다. 總移住者數 953명 중 軍人 및 學生을 제외한, 調査 당시 職業을 갖고 있던 510명(表 5 參照) 중 무응답 및 '모르겠다' 130명을 제외한 移住者들의 月平均收入額은 (表 7)과 같이 밝혀졌다.

表 7 移住者의 月平均收入*

月收入	性別			단위 : 명 (%)
	界	女	計	
10만원 미만	52(26.7)	144(63.7)	196(46.6)	
10~15만원 미만	68(34.9)	61(27.0)	129(30.6)	
15~25만원 미만	60(30.8)	19(8.4)	79(18.8)	
25만원 이상	15(7.7)	2(0.9)	17(4.0)	
계	195(100.0)	226(100.0)	421(100.0)	

* 1980年度 收入基準。

(表 7)을 볼 때 月平均收入額에 대해 밝힌 移住者의 77%가 15만원 미만의 月收入을 갖고 있는데 이는 全國 平均인 84.3%(노동청 1980, 21) 보다 낮아 農村에서의 部分家族移住者들이 全國 水準보다 조금 나은 賃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移住者의 性別로 月收入額을 비교해 보면 女子가 男子에 비해 불리한 報酬를 받고 있다.

다음은 移住者들이 本家에 送金한 것을 통해 이주자의 經濟的 水準을 보도록 하자. (表 8)은 移住者들의 本家送金 現況이다.

本調査에서 月收入額을 밝힐 수 있었던 421名

表 8 移住者의 本家送金 現況*(연간)

送金額	性別			단위 : 명 (%)
	男	女	計	
3만원 ~ 10만원	18(25.3)	24(30.4)	42(28.0)	
11만원 ~ 19만원	6(8.5)	8(10.1)	14(9.3)	
20만원 ~ 39만원	17(23.9)	19(24.1)	36(24.0)	
40만원 이상	30(42.3)	28(35.4)	58(38.7)	
계	71(100.0)	79(100.0)	150(100.0)	

* 軍人 및 學生移住者 제외한 수치임.

의 移住者 중 그 36%만이 本家에 送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男女別로 보면 男子 移住者의 경우는 月收入이 밝혀진 사람이 36%, 女子 移住者의 경우는 35%로 男女別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本家送金額은 40만원(연간) 이하가 61%, 40만원 이상 송금한 移住者가 39%이었고, 10만원 미만도 18%나 되고 있다.

部分家族移住者들의 本家에 대한 送金現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部分家族移住者들이 本家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農村을 빠져나간 총 953명의 移住者 중 16%만이 農村에 送金을 하고 있으며, 送金額 또한 많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를 立證해 준다. 일부 가족 이주자들이 本家에 送金을 적게 한다는 사실은 일부 가족 이주자들의 經濟的 水準이 넉넉하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IV. 移住要因

1. 經營主體 통해 본 移住要因

應答者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어 본 制限이 따르지만 軍服務로 집을 떠난 移住者를 제외한 移住者的 移住理由는 다음 (表 9)와 같이 밝혀졌다.

(表 9)에서 알 수 있듯, 男女를 綜合해 볼 때 단일 移住要因으로 가장 優勢한 要因은 錢벌이

表 9 移住 理由

理 由	性別			단위 : 명 (%)
	男	女	計	
학 입	197(44.5)	118(29.4)	315(37.3)	
돈 별 이	180(40.7)	209(52.0)	389(46.1)	
취직, 전근, 기출습득	49(11.1)	43(10.7)	92(10.9)	
가 정 문 계	8(1.8)	31(7.7)	39(4.6)	
농 사 일 이 싫 어 서	8(1.8)	1(0.2)	9(1.1)	
계	442(100.0)	402(100.0)	844(100.0)	

이고, 學業, 職業, 轉勤, 技術習得, 家族問題, 농사일 싫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移住要因의 분포로 알 수 있는 점은 部分家族移住의 경우 그 주요한 要因은 돈벌이와 學業이며, 농사일이 싫어서의 이유는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就職, 轉勤, 技術習得의 항목과 돈벌이의 항목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就職, 轉勤, 技術習得은 가서 일할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고, 돈벌이는 무작정 農村地域을 빠져나간 것을 의미한다. 부분가족 이주 중 농촌에서 都市로 나간 비율이 92%이고(表 6 참조), 16~15세의 젊은 중(表 3 參照)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심각한 社會問題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 9)에 나타난 移住理由를 男女別로 비교해 보면, 男子 移住者의 경우 學業이 많고 돈벌이가 그 다음인데 비해, 女子 移住者의 경우는 돈벌이가 많고 그 다음이 學業으로 對照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자식에 대한 父母의 教育觀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男子 移住에 비해 女性 移住者의 경우 특히 주목할 점은 家庭問題로 집을 나온 사람이 男子의 4배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青少年의 先導問題와 연관지워 생각해 볼 과제이다. 그리고 女子 移住者的 경우 男子 移住者보다 職業 確實 없이 집을 나온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2. 農家の 社會經濟的 背景과 移住要因

部分家族移住 要因 중 農村 本家와 관계되는 要因을 규명하기 위해 여기서는 農家の 社會的 背景과 部分家族移住를 연관시켜 보았다. 農家の 社會經濟的 背景, 生活環境 與件 등이 그 家口의 部分家族移住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우리의 假設이다. 移住者가 있는 家口를 G₁, 移住者가

表 10 經營主의 社會的 背景, 農家の 差異比較

관련변수	부분가족 농가집단별 이주자집단 (G ₁) (N=442)	비이주자 집단(G ₂) (N=351)	평균의 차이 (M ₁ -M ₂)
	평균값 (M ₁)	평균값 (M ₂)	(M ₁ -M ₂)
1) 경영주 나이	48.35	45.76	2.59*
2) 경영주 교육수준	6.48	6.56	0.08
3) 경영주 직업 ¹⁾	0.96	0.97	0.01
4) 경영주 농지면적만족도 ²⁾	3.22	3.02	0.20**
5) 경영주 농촌생활만족도 ²⁾	2.91	2.65	0.26**
6) 경영주 자녀교육만족도 ²⁾	3.18	2.89	0.29**
7) T.V 시청시간(시간)	1.82	1.78	0.04
8) 농협 부채액(만원)	71.78	65.20	6.58
9) 총경지면적	2,983.01	2,768.21	214.8**
10) 총가족수	6.68	5.78	0.9*
11) 총동거식구수	4.81	5.34	-0.53*

* t 0.01 수준에서 有意.

** t 0.05 수준에서 有意.

1) dummy variable(농업 1, 비농업 0)

2) 대단히 만족(1), 약간 만족(2), 보통(3),
약간 불만족(4), 대단히 불만족(5),

없는 家口를 G₂라 할 때⁷ G₁과 G₂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零假說(H₀)로, 차이가 있는 것을 對立假說(H₁)로 한다. 이러한 假說을 檢證하기 위해 평균값 차이를 檢證하는 T-檢證方法을 이용하고 有意水準은 0.05로 하였다.

이 研究에서 檢證하기로 선정한 農家の 社會經濟的 背景 變數는 經營主의 年齡, 教育水準, 職業, 農土 滿足度, 農村生活 滿足度, 子女教育施設 滿足度, TV 視聽時間, 農家の 農協負債額, 總耕地面積, 總家族數 등 11개 變數에 대해서이다. T檢證으로 나타난 결과는 (表 10)과 같다.

檢證 결과 經營主 年齡, 總家族數, 同居家族數는 0.01 有意水準에서 部分家族 移住家口 集團과 非移住家口 集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이 밝혀졌고, 0.05 수준에서 經營主의 農村生活 滿足度, 子女教育 滿足度, 總耕地面積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經營主 教育水準, TV 視聽

⁷ 군인은 이주자가 없는 가구(G₂)에 포함시켰다.

表 11 農家의 社會的 背景과 移住와의 相關關係

區 分	標本數	r 值
경영주 연령 ¹⁾	793	0.1240*
경영주 농지면적 만족도 ²⁾	793	0.0775**
경영주의 농촌생활 만족도 ²⁾	793	0.1102*
경영주의 자녀교육 만족도 ²⁾	793	0.0783**
총경지면적 ¹⁾	793	0.0709**
총가족수 ¹⁾	793	0.2392*
총동거 식구수 ¹⁾	793	-0.1437*

* : p=0.01에서 有意.

** : p=0.05에서 有意.

1) Pearson r 值.

2) Spearman r 值.

時間, 農協 負債額 등에서는 두 集團간에 有意한(0.05수준) 차이가 없었다.

T-檢證 結果 차이나는 要因의 強度(strength of association)를 알아보기 위해 相關係數 값을 통해 판정하였다. 이때 從屬變數는 移住(1), 非移住(0)의 더미 變數(dummy variable)로 하였고 獨立變數는 T-檢證 結果 두 集團간의 有意水準에서 차이가 보인 變數로 固한시켰다. 農家の 社會的 背景과 移住와의 相關關係는 〈表 11〉과 같다. 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總同居家族數를 제외한 모든 變數에서 각 變數와 移住 여부간에 正의 相關關係가 나타났고 強度는 總家族數, 經營主 年齡, 經營主의 農村生活 滿足度 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總同居家族數에서 負의 相關關係가 나타난 것은 移住要因보다는 移住結果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 볼 때, 移住者 家口와 非移住者 家口 사이에는 經營主의 社會的 背景, 本家의 背景에서 선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며 밝혀진 移住要因 가운데 總家族數가 部分家族移住에 가장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세웠던 假說은 통계적으로 有意한 水準에서 檢證되었다고 할 수 있다.

⁸ 扶養率 = (14세 이하 人口數 + 65세 이상 人口數) / (14~65세 人口數)

V. 移住와 農村 勞動力

앞에서 部分家族移住者의 特징을 언급하면서 農村에서 輦은층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한 社會의 人口構成에서 특정 年齡층의 人口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人口構成에 있어 不均衡을 초래하게 된다.

〈圖 1〉은 전국적인 人口構成과 本調査에서 조사한 農家口의 人口構成을 비교한 것이다.

전국적인 人口構成은 완만한 삼각 피라밋을 이루고 있어 人口가 안정되어 있음을 보이지만, 輦은 층의 人口가 많이 빠져나간 우리가 조사한 農村地域의 人口 피라밋은 全體 人口에서 幼年層, 특히 10~14세의 비율이 높고, 또 40대 이후가 都市에 비해 많은 比重을 차지하는 人口構成상의 不均衡한 特徵을 지닌다. 특히 農村地域에서 勞動力의 주를 이루고 있는 25~30세의 人口比率은 男子의 경우 全體 人口의 11.5%, 女子의 경우 11.6%에 불과하여 全國 平均 男子 21%, 女子 20.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農村 勞動力의 質이 매우 심각함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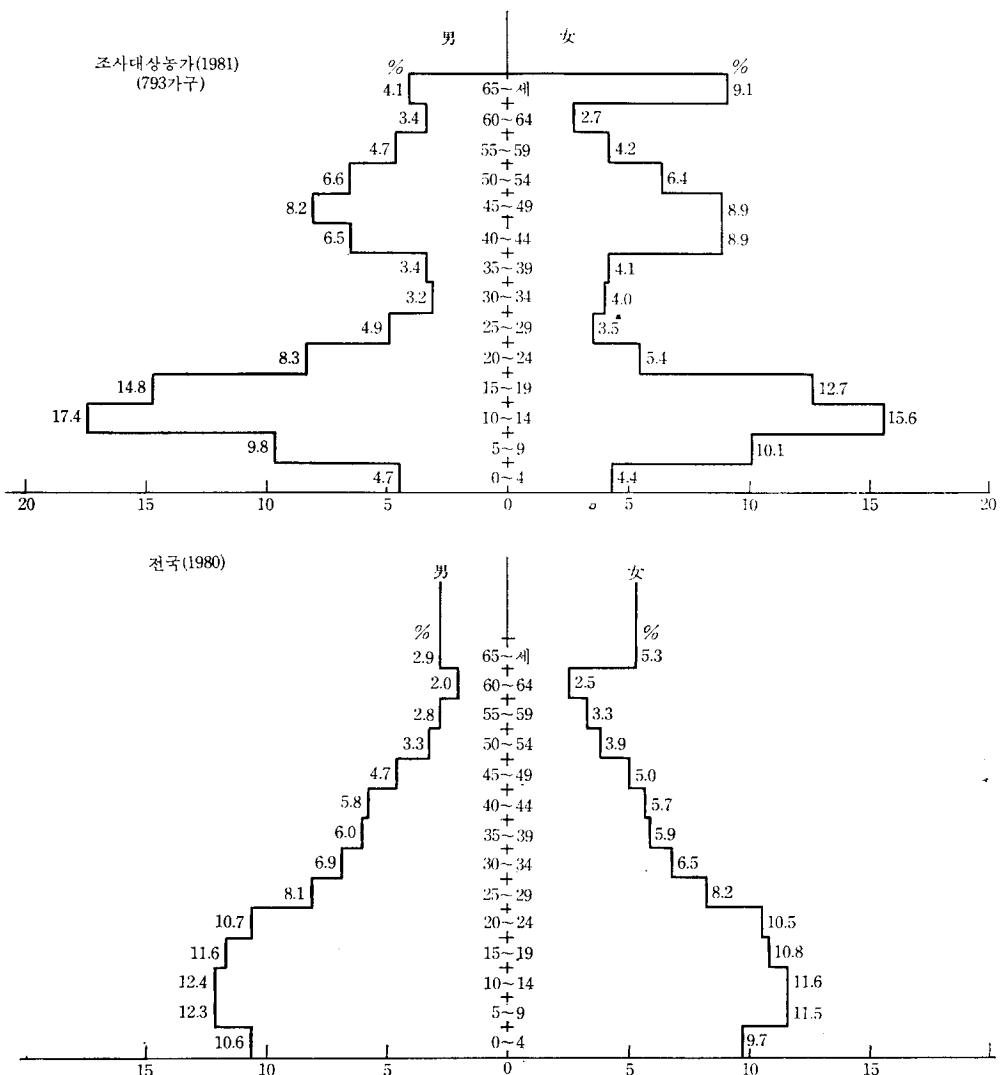
勞動能力을 가진 人口對 扶養對象의 人口를 비교한 扶養率⁸⁾을 보더라도 조자지역 농가 평균과 전국 평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全國의 경우 總扶養率은 54.5%인데 비해 農村의 扶養率은 60.1%를 차지하고 있다(表 12).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調査 對象의 農村 人口가 全國 平均에 비해 老齡化되었다는 것

表 12 扶養比

區 分	全 國	調査 家 口
總 扶 養 率	54.5%	60.1%
幼 年 扶 養 率	48.4	49.6
老 年 扶 養 率	6.1	10.5

圖 1 調査對象 農家와 全國 人口의 人口 피라미(構成比)



이다. 農村勞動力의 老齡化現象은 앞으로 農業就業者의 隱退率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轉職과 더불어 農業勞動의 감소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要因이 될 것이다(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

VII. 移住에 대한 評價

經營主의 입장에서 본 移住評價는 아래〈表 13〉과 같다.

表를 보면 部分移住者가 있는 家口의 經營主의 93%가 移住에 대한 肯定的評價(잘했다 또는 보통이다)를 하고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表 13 移住評價*
단위 : 명 (%)

區 分	男	女	計
잘 했 다	364(86.1)	346(87.2)	710(86.6)
보통 이 다	31(7.3)	22(5.5)	53(6.5)
잘 못 했 다	28(6.6)	29(7.3)	57(6.9)
계	423(100)	397(100)	820(100)

* 軍人은 통제한 수치임

表 14 移住評價와 諸要因과의 相關關係

區 分	교육 이수 년수	이 주 년도	귀향 예정 년도	월평균 수입 회수	본 가 방문 회수	생활 수준	본 가 송금
이 주 평가	r=-.1068* (300) p=0.032	r=-.1292* (300) p=0.013	r=-.2083* (66) p=0.047	r=.2534** (296) p=0.001	r=.1534* (300) p=0.003	r=.1539** (276) Sig=0.006	r=0.062 (300) p=0.142

註 1) Sperman correlation 값, 그의 변수는 Pearson correlation 값.

* 0.01에서有意

** 0.05에서有意

部分家族移住에 대해 전반적으로 本家에서 好意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

移住에 대한 肯定的評價要因이 무엇에 의해決定되는지를 보기 위해 移住者 및 本家에 관련된 變數와 移住評價關係를 Pearson correlation 및 Sperman correlation을 통해 분석한結果는〈表 14〉와 같다.

移住評價와 統計的으로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는 變數는 教育履修年數, 移住年度, 歸鄉豫定年度, 月平均收入, 本家訪問회수, 生活水準등이다. 本家(經營主)는 移住者에 대한 移住評價를 함께 있어

- (1) 教育을 많이 받고 되도록 早期移住한 사람
- (2) 歸鄉豫定年度가 늦거나, 歸鄉치 않을豫定인 사람
- (3) 移住者的 月平均收入이 높은 사람
- (4) 本家를 자주 訪問하는 사람
- (5) 生活水準이 높다고 보여지는 사람에게 肯定的移住評價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月平均收入 本家訪問回收, 生活水準과의 關係와 이주 평가가 더욱 밀접해, 移住者가

移住地에서 돈을 많이 벌며 잘 살고 本家도 자주 방문하는 移住者에 대해서 肯定的評價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本家送金額과는 相關關係에 有意性이 없어 비록 移住者가 收入과 生活水準이 높은데도

本家送金을 않는다고 해서 移住를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II. 要約 및 討議

慶尙南道 3개 郡의 農村의 部分家族移住에 대한 調查結果, 調查地域 農村 家口의 64%가 1명 이상의 部分家族移住者를 갖고 있었고, 軍人을 제외할 경우 全體 調查對象農家の 56%에 해당하는 상당한 家口가 部分家族移住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部分家族移住의 形태로 農村을 빠져나간 移住者は 家族地位에 있어 農家經營主의 子女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年齡의으로 볼 때 16~25세가 全體 移住者の 82%를 차지하고 있었다. 移住者들은 未婚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教育水準도 높았고 教育을 목적으로 移住한 경우가 移住者の 3분의 1이나 되었다. 移住者들은 職業에 있어 移住 당시와 調查時에 職業移動을 보이고 있었고, 移住地의 行선지에 있어서도 처음 行선지와 現居住地에는 移動이 보였다.

移住者の 經濟的水準은 賃金勞動者の 전국수준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고, 農家에 送金 등을

통해 經濟的으로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移住 理由는 '돈벌이'의 經濟的 要因이 過半數를 차지하였고 教育도 3분의 1이 넘었다.

農村地域에서 일어난 이러한 部分家族移住의結果 나타난 문제점은 農村이 良質의 勞動力を 都市에 공급하는 源泉地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고, 農村離農에 대한 종합대책이 없는 한, 農村은 社會經濟的으로 畸形化될 것이며, 食糧의 安定的 供給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源泉的으로 解決하기 위해서는 農村의 子女들이 農村에 남아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農村住民에게 農業 所得만을 강조하는 단편적인手段보다는 農村 中心圈 開發計劃이나 주요 產業施設, 生產工場의 地方 分散化를 통해 農村地域에서도 就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요망된다.

本研究 이외에 여기서 밝혀진 部分家族移住者에 대한 追跡調查, 그리고 農村에서 빠져나간 全家口移住도 포함시켜 연구할 때 離農現象에 대해 올바로 접근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는 앞에서 밝혔듯이 離農現象에 대한 綜合研究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參 考 文 獻

家族計劃研究院, 「人口學辭典」, 人口情報管理센타, 1979.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이동통계연보(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제11권, 1980.
 _____, 「한국통계연감」, 제28호, 1981.
 金善雄,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研究叢書 16, 人口政策세미나 綜合報告書, 韓國開發研究院, 1976.
 노동청, 「노동력유동실태조사보고서」, 1980.
 文丞珪, 「農村 子女의 移出에 關한 研究; 全北 二個 農村地域을 中心으로」, 研究叢書 第10號,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1972. 12.
 產業開發研究所, 「研究報告」, 第3卷, 慶北大學校, 1975.
 尹鍾周, 「國內 人口移動 中 家口移動에 關한 考察」, 「人口問題論集」, 第18號, 1974.
 李文雄, 「人口移動과 都市性의 變化」, 「政經文化」, 1979. 7.
 李禎九, 「離村向都性向의 要因分析에 關한 研究; 全南 潭陽郡의 青少年을 中心으로」, 「지역개발연구」, 제7권, 제1호, 全南大 地域開發研究所, 1975. 12.
 李海英, 權泰煥, 「韓國社會: 人口와 發展(I)」,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1978.
 인구문제연구소, 「이농인력이 농촌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과학기술처, R-71-10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業勞動力 減少와 營農機械化」, 1980. 5.
 洪思媛,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研究叢書 20, 韓國開發研究院, 1978.
 崔敏浩, 李洛薰, 「농촌 청소년의 도시 이동 동기」, 「농민문화」, 1980. 5.
 Caldwell, John C., *African Rural-Urban Migration: The Movement to Ghana's Towns*, 1969.
 Lee, On-Jook, *Urban-to-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980.
 Lee, Man-Gap and Herbert R. Baninger, *Rural-Urban Migration and Social Mobility: Studies of Three South Korean Cities*,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Papers of the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no. 51, 1978. 5.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Bulletin*,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 VIII and Vol. IX, 1980.